

# 崔白詩의 唐風 形成 背景

김준욱\*

## <차 례>

1. 머리말
2. 崔白詩의 風格
3. 崔白詩의 唐風 形成 背景
  - 3.1 文學에 대한 先天的 才氣
  - 3.2 師弟 및 交遊 關係에서 형성된 情義
  - 3.3 現實에 대한 傍觀的 態度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6세기 宋風 위주의 문학적 환경 속에서 孤竹 崔慶昌과 玉峯 白光勳의 시가 唐風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물이다.

한국문학사에서 三唐詩人 중 최경창과 백광훈을 따로 崔白이라 칭한다. 그들이 구가한 시는 송풍 위주의 시대 경향과는 달리 盛唐風이었다. 문학을 심성 수양의 수단으로 보는 道德主義가 본류를 이룬 조선 초기에 崔白이 함께 성당풍의 시를 진작시킨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崔白은 문학에 대한 선천적 才氣가 본능적으로 작용했다. 崔白은 어렸을 때부터 詩的 才氣가 남달랐다. 이들은 性情 陶冶 후 문학을 실천하는 것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이를 학습하거나 깨닫지 못한 상태부터 문학을 위한 문학에 천부적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 전남대학교

둘째, 師承 및 交遊關係에서 학습하고 터득한 情義가 성당풍의 시를 창작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최백은 스승이었던 李後白, 梁應鼎, 朴淳, 林億齡 등으로부터 儒學과 詩를 함께 배웠고, 이미 당풍을 일깨운 호남의 士林들과 情義로 교유하면서 자연미를 발견하고 비애미를 터득하게 되어 결국 성당풍 경향의 시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셋째, 崔白은 당파로 이어지는 政治的 矛盾, 載道的 學風에 대한 乖離 속에서 심한 심적 갈등을 겪었는데, 이를 오히려 傍觀者的 태도로 극복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마침내 성당풍 경향의 시가 탄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최백은 자신들만의 논거가 될 만한 시론을 따로 전개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선천적 재기, 사승 및 교유 관계에서 이루어진 情義, 정치 현실에 대한 방관적 태도가 종합적이고 은연중에 작용하여 결국 성당풍의 시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崔慶昌, 白光勳, 盛唐詩風, 才氣, 情義, 傍觀

## 1.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16세기는 호남의 문운이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던 때였다. 三唐詩人을 비롯하여 관각 3걸이니 8문장가니 하는 걸출한 인물들 중에는 호남에 기반을 둔 문인이 많았고, 이들은 누정 중심의 시사를 통하여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sup>1)</sup>

이런 문학적 환경에서 孤竹 崔慶昌(1539~1583)과 玉峯 白光勳(1537~1582)을 따로 ‘崔白’이라 불렀다. 두 문인과 동년배이면서 함께

1) 이러한 사실은 芝峯 李晬光의 『芝峯類說』과 蛟山 許筠의 『惺所覆瓿藁』 등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사회에 참가 했던 霽峯 高敬命(1533~1592)은 최백 사후 곧바로 고죽과 옥봉의 시고를 한데 묶어 「崔白詩」를 발간하려 했고,<sup>2)</sup> 후대에 간행된 『孤竹遺稿』 五言絶句 <寄僧>의 주<sup>3)</sup>와 七言絶句 <偶吟>의 주<sup>4)</sup>에는 오히려 『崔白集』이 앞서 실재했던 것으로 나온다. 이미 발간된 『孤竹遺稿』이나 『玉峯集』에 수록된 작품을 가려 뽑은 것과 다름이 없지만, 실제로 근자에는 17세기 전반에 출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崔白詩」가 발견되었다.<sup>5)</sup> 또, 삼당시인의 한 사람인 蓀谷 李達(1539~1612)마저 고죽과 옥봉을 최백이라 묶어 칭하면서<sup>6)</sup> 두 사람을 사귀으로써 부족함을 깨닫고 진땀을 흘려 내려 그 배운 바를 모두 버리고 다시 배웠다<sup>7)</sup> 할 정도로 자신과 차별화했다. 農巖 金昌協(1651~1708)은 최백을 마치 당시 하나의 유파처럼 호칭하기도 했다.<sup>8)</sup> 최백은 우리 문학사에서 이미 범칭이 된 것인데, 그런 배경에는 지역적 연고, 동문수학, 생몰시기, 작품 경향 등이 같다는 것이 두루 작용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삼당시인에 대해서는 작가론 중심으로 어느 정도 해명되었고 시의 풍격 문제도 자주 논의 되었다.<sup>9)</sup> 그 결과 이 세 문인으로 인하여 유

2) 崔 岵, <訂玉峯孤竹集合刊不可說>. 崔慶昌, 『孤竹集』, 靈巖文化院, 2002. pp. 233~235. 참조.

3) 『孤竹集』, p. 50.

4) 『孤竹集』, p. 109.

5) 金喆凡, 『東洋漢文學研究』13, 東洋漢文學會, 1998, pp.226~227. 여기에는 絶句, 律詩, 古詩의 순으로 5언과 7언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는데, 고죽의 시 218수, 옥봉시 247수가 실려 있다.

6) 李 達, 『蓀谷集』, 詩, <湖寺見僧軸有崔白詩愴懷有贈>. 趙達淳 譯, 『三唐詩』, 태학사, 1999, p. 544.

7) 趙達淳 譯, 『完譯 三唐詩』, 태학사, 1999. p. 482. 及交崔白 悟而汗下 盡棄其所學而學焉.

8) 金昌協, <苔川集序>, 『農巖集』 卷 22, 景仁文化社 영인, 1976. p. 386.

湖南之詩 自李青蓮始學唐 因以崔白代興 益有聲詞苑 以公而繼其後 殆可以無愧焉矣.

9) 安炳巖,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宋窩鎬, 「蓀谷 李達 詩研究」, 『東方學志』 64. 1989. pp.75~117.

金鐘西, 「玉峯 白光勳 詩의 風格」, 『韓國漢詩研究』 3, 韓國漢詩學會, 1995. pp.189~229.

——, 「孤竹 崔慶昌 詩의 風格」, 『韓國漢詩研究』12. 韓國漢詩學會, 2004.

학에 뿌리를 단단히 두고 전개된 載道的인 문학관의 흐름이 송풍에서 당풍으로 이행되었다는 결론은 도출된 상태이나 그 귀착된 인과적 필연성은 결여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 선행조건인 唐詩風 형성 배경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제기된다.

이 논문은 16세기 최백의 시가 당시풍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고죽과 옥봉을 따로 최백이라 칭한다는 점, 최백과 손곡은 師承關係가 일치 하지 않고 또 처음 만난 것이 중년을 넘어서었으니 작품 형성 배경이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 제한이 필요했다.

작가에 대한 연구는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도출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 작가의 성장 환경이나 출사 과정이 작품 경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최백에 대해서는 이미 그 위인과 작품이 드러난 상태이므로 이를 일일이 다시 분석하는 것은 이 논제를 풀어가는데 과한 수고가 될 것이다. 다만, 제가의 최백시 풍격을 상기하는 것은 본격적인 논의의 앞선 필수적인 전제가 되므로 이를 먼저 논급하고 두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문학 활동, 사승 및 교유 관계, 현실에 대한 적응 태도 등을 추적하다 보면 당시의 문풍이 송풍 위주의 환경 속에서 당풍을 수용한 인과적 논리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 2. 崔白詩의 風格

최백은 당대 지식인이었는데도 어떤 시론이나 논변을 남기지 않았으나 희로애락을 읊은 絶調가 각각 200여 수와 500여 수가 전해지고 있다. 그

pp.227~266.

鄭珉, 「16,7세기 학당풍의 성격과 그 風情」, 『韓國漢詩研究』6. 韓國漢詩學會, 1996. pp. 189~222.

조영임, “孤竹 崔慶昌의 風格과 詩世界”, 『개신어문학』, 1999.

車溶柱, 『韓國漢文學作家研究』, 亞細亞文化社, 2001. pp. 276~ 360.

박영관, 「玉峯 白光勳의 交遊와 詩文學 研究」, 朝鮮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6.

작품들은 당대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芝峯 李睟光(1563~1628), 象村 申欽(1566~1628), 蛟山 許筠(1569~1628), 許蘭雪軒(1563~1589), 玄默子 洪萬宗(1643~1725) 등의 논평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지봉은, 우리 나라 시들이 2백 년 동안 蘇東坡와 黃庭堅을 좋아해 모두 그들의 시를 따랐으나 근세에 이르러 고죽과 옥봉이 비로소 당시를 배워 淸苦했기 때문에 최백이라 하며 일시의 문인들이 그들을 본받아 지난날의 시풍을 변화시켰다<sup>10</sup>)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사신 朱之蕃이 우리나라 시를 구해 보고자 했을 때 최백의 시집을 보였더니 감탄하면서 강남으로 돌아가게 되면 간행해서 귀국의 문물이 융성함을 자랑시키겠다고 했는데 두 사람의 시가 당시에 가깝기 때문에 좋아한 것<sup>11</sup>)이라 덧붙이고 있다.

상촌은, 우리 나라 시인으로 들었던 자가 한둘이 아닌데 오직 崔白 두 분이 正音으로서 세상에 알렸다<sup>12</sup>)고 품평했다. 정음이란 당시를 말하는 것이니 당시에는 최백이 당시의 으뜸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許蘭雪軒은 <感遇詩>로서 최백시의 격조를 이렇게 읊었다.

요즘 최백이	近者崔白輩
성당을 벗 삼아 시를 읽혀	攻詩執盛唐
적막하던 대아의 음률이	寥寥大雅音
이들을 만나 다시금 크게 떨쳤네	得此復鏗鏘
하료는 마냥 광록이고	下僚因光祿

10) 李睟光, 『芝峯類說』, 卷 9. 文章部 2. (趙鍾業 編, 『韓國詩話叢編』 第2卷, 東西文化院, 1989. p.41.)

我東詩人 多尚蘇黃 二百年間 皆襲一套. 至近世 崔慶昌白光勳 始學唐 爲淸苦之詞 號爲崔白. 一時頗效之殆 變向來之習. 然其所尚者 晚唐耳 不能進於盛唐. 豈才有所局耶.

11) 李睟光, 앞의 책, 卷 14. <詩藝> (趙鍾業, 위의 책, p.158.)

又朱天使之蕃求見東詩. 以崔慶昌白光勳集示之. 天使歎賞曰 當歸梓江南 以誇貴邦文物之盛. 豈以二詩近唐故喜之歟.

12) 申 欽, <玉峯集序>. 我東 以詩聞者 其家非一 而唯崔白二子以正音鳴 異時諸學士大夫 苟用文章自命者 則必顯重而稱說之. 雖以欽之面牆 猶得習誦其遺韻. (白光勳, 『玉峯集』, 전일실업국, 1992. p.138.)

변방의 고을 살이 積薪이 슬프네	邊部悲積薪
나이와 벼슬이 모두 쇠락하니	年位共零落
이제야 믿겠네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함을	始信詩窮人 <sup>13)</sup>

蘭雪軒은, 두 사람의 시가 盛唐風이라는 점, 大雅의 음률이라는 점, 시로 인해 오히려 낮은 벼슬을 전전했다는 점을 노래하고 있다.

교산은, 고죽의 시는 悍勁하고 옥봉의 시는 枯淡해서 모두 당시의 규범을 잃지 않았으니 진실로 천년의 드문 가락이다<sup>14)</sup> 했다. 그리고 玄默子는 고죽은 淸淑하고 옥봉은 瘦朗하다 했다.<sup>15)</sup>

네 의견을 종합하면, 최백은 우선 당풍으로 뛰어난 文才들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시의 내용은, 고죽은 悍勁과 淸淑으로 옥봉은 淡泊과 瘦朗으로 요약된다. 悍勁은 淸勁이라고도 하는 바<sup>16)</sup> 이는 맑고 굳은 의지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枯淡은 격조가 높고 욕심이 드러나지 않은 담박함이라 해석된다. 최백시가 당시 사변적이고 논리적이며 목적적인 경향을 중시한 송풍에서 벗어나 대단히 낭만적이고 정서적이며 자연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최백시를 당풍이라 한 것은 위와 같은 풍격과 함께 아름다운 성조, 주정적 분위기가 충분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곧, 최백시는 그 내용이 당풍을 띠고 있고, 아름다운 성조와 주정적 흐름도 그와 같다는 의미로 보아도 되겠다.

고죽 시만을 따로 두고 보아도 제가들의 평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교산은 역시 자신이 고죽의 오언고시와 옥봉 및 허난설현의 칠언 절구를 한권으로 하여 본바 그 음절과 격률은 모두 옛 사람들에 가까우나 기가 미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우니 누가 원성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13) 許筠, 『惺所覆瓿藁』, 附錄 1 <鶴山樵談>. 民族文化推進會, p. 242.

14) 許筠, 위의 책, <說部> 4. <惺叟詩話>. p. 220.

崔詩悍勁 白詩枯淡 俱不失李唐跬逕 誠亦千載希調也.

15) 洪萬宗, 『詩話叢林』, (趙鍾業 編, 『韓國詩話叢編』 第4卷, 東西文化院, 1989.

p.369.) 崔孤竹之淸淑 白玉峯之瘦朗 李蓀谷之孤絕.

16) 許筠, 앞의 책, 附錄 1. <鶴山樵談>. p. 239.

崔白李三人詩 皆法正音 崔之淸勁 白之枯淡 皆可歸重.

가<sup>17)</sup> 했다. 尤庵 宋時烈(607~1689)은, 고죽의 시가 성당이나 중당의 시에 가깝다<sup>18)</sup> 했고, 南溪 朴世采(1631~1695)는, 고죽의 시가 재능이 뛰어났으며 성당의 시를 규범으로 해 글을 말하는 자들이 국조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sup>19)</sup> 했다. 고죽의 외증손 李敏叙(1633~1688)는 고죽의 시가 一唱三歎의 遺音이 있었다<sup>20)</sup>고 극찬했다.

옥봉시에 대하여 교산은 淡泊하다 했고 현목자는 瘦朗하다 했음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國朝詩刪』을 편찬했던 교산은 또 옥봉의 시를 가려 뽑아 작품마다 淸亮, 淸談, 枯淡, 淸冷入幽, 唐人雅趣, 闖韋柳者라는 평을 덧붙이고 있는데,<sup>21)</sup> 이들을 모두 맑고 깨끗함이 연상되는 주정적 品彙들이다.

『玉峯集』 서문을 의뢰 받은 상촌은,

기가 완전하고 소리가 맑고 그 색이 淡古했으며 이름답고 법도에 맞았다. 아,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늘로부터 타고난 재주가 없으면 시라 말하지 못할 것이다. --중략-- 옥봉의 시는 진실로 正音이라 할 것이다. 시험 삼아 장단을 맞추어 노래를 하면 물소리 같은 宮音이요 옥 소리 같은 商音이다. 시를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 옛날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맑은 공기가 발산되어 시인의 마음속까지 들어가는 것이라 했으니 옥봉의 시가 거기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sup>22)</sup>

17) 許 筠, 앞의 책. <說部> 4. <惺叟詩話>. p. 220.

余嘗聚孤竹五言古詩 玉峯及亡妹七言絕句 爲一帙看之 其音節格律悉逼古人 而所恨氣不及焉. 嗚呼孰返其元聲耶.

18) 宋時烈, <孤竹集序>. 『孤竹集』, p. 29.

公之詩 雖逼於天寶元和 豈足以掩其人乎.

19) 朴世采, <孤竹集後跋>. 『孤竹集』, p. 252.

公於詩 天才絕高 必皆軌範于盛唐操觚家 以爲國朝所未有.

20) 李敏叙, <孤竹遺稿跋>. 『孤竹集』, p. 261.

發揚振勵 而不入於狂怪 隱約閒靜 而不病於枯槁 靄然有一唱三歎之遺音.

21) 金鐘西, 앞의 논문, p. 204. 참조.

22) 申 欽, <玉峯集序>. 『玉峯集』, pp. 138~141.

其氣完 其聲淸 其色淡而古 其旨雅而則. 噫 其得於天者耶. 詩非天得 不可謂詩之詩 --중략-- 信乎其爲正音也. 試擊節而歌之 則泐泐者宮 鏗鏘者商 讀之者 心澈而腸潔 古所云乾坤有淸氣 散入詩人脾者 白子其近之歟.

했다.

『옥봉집』 서문은 西峒 柳根(1549~1627)도 썼다. 서경은 옥봉에 대하여 시에 관한 한 천부적인 자질을 지니고 태어났는데 그의 작품이 좋은 것은 일자일구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면서 세상에 시를 논하는 자들이 그를 正派라 한다<sup>23)</sup> 했다. 月沙 李廷龜(1564~1635)도 옥봉시에 대하여 절구를 잘 지어 깊이 성당의 풍격을 터득하여 시집이 탈고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두 입에서 서로 전하며 익혔다면서 句法은 精巧하게 다듬어 있으며 음조는 맑게 울리면서 음률의 법도에 맞아 읽으면 맑은 金鍾과 石磬의 소리가 있었으니 진실로 이른바 그 나아가는 바를 바르게 하여 소리의 精한 것을 터득한 사람<sup>24)</sup>이라 극찬했다. 고죽과 옥봉 시의 합본 출간을 반대했던 簡易 崔昱(1539~1612)은 ‘恬澹하고 醞藉한 성품의 옥봉은 남국의 아름다움을 밝게 비쳐주는 시를 창작했는데 모두 당시에 접근했다’<sup>25)</sup>고 했다.

옥봉의 경우는 감상주의적인 晚唐詩風으로 분류하기도 하나,<sup>26)</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가들은 최백시를 상당히 높은 경지의 성당풍으로 일반화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성당대의 시가는 다양한 기교, 개성 있는 작품, 내용과 수사의 확대로 이어져 그 전성시대를 맞는데, 제가들이 고죽의 시나 옥봉의 시나 성당 기풍을 지녔다고 품평한 것은 그 형식과 내용이 모두 그에 합당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23) 柳 根, <玉峯詩集序>, 『玉峯集』, pp. 131~132.

玉峯乃能奮于百載之下 追蹤乎古人 振響於絕代 一字一句有不稱於意 不欲出以示人. 平生咳唾流落人問者. 人重之如瓊瑤 公於聲韻 殆天得也. ---- 爲人清苦 不屑舉子業 ---- 世之論詩者 以公爲學唐 而得其正派 盛矣哉.

24) 李廷龜, <玉峯集序>. 『玉峯集』, p. 120.

尤工於絕句 心得盛唐風格 詩未脫稿 人皆口相傳以熟 ---中略--- 句法精鍊 音調響亮 中律度 讀之 鏘然爲金石聲 眞所謂正其趨向 而得聲之精者也.

25) 崔 昱, 『簡易集』 卷 9. 1976. P. 348.

<訂玉峯孤竹二稿合刊之議不是小序> 참조.

吾彰卿 信南國之美 炯然孤照者也. 然壹事夫詩 而韻格逼唐之外 恬澹醞藉 復如其人可愛也

26) 車溶柱, 『韓國漢文學作家研究』, 亞細亞文化社, 2001. p. 318.

### 3. 崔白詩 唐風 形成 背景

선초는 사장학에 치우친 관료적 문학과 도학을 중시한 처사적 문학이 크게 대립된 채로 전개되는데 두 부류가 다 문학을 심성 수양의 수단으로 보는 도덕주의가 본류를 이룬다.<sup>27)</sup> 당연히 문학은 제도권과 선비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고 다양한 기교나 개성 있는 작품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것도 시작은 한갓 ‘餘技’로만 여겼으니 이 시대 시가문학은 자칫 침체기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림들에 의한 문학은 꾸준하게 진작되었고 특히 관료로도, 처사로도 자처하지 않은, 지배 세력에 대한 반발 기류들이 일부 일어난다. 그 기류는 사대부적 삶의 양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진출에는 소극적이면서 자연에 묻히거나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진 문학을 태동한다. 더불어 승려와 기녀 등 다양한 계층들도 문학에 뛰어든다. 이들에 의하여 선초의 문학은 오히려 도덕주의만의 문학에 다양성을 추가하는 문학사적 의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면 선비로서의 최백이 이 시대의 보편적 문학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문학적 영역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모두에서 미리 제시했던 바와 같이, 문학에 대한 개인적 才氣와 師承 및 交遊關係의 영향 그리고 당시 시끄러웠던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적응 태도 등을 두루 살펴다 보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3.1 文學에 대한 先天的 才氣

문학은 우선 선천적 才氣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성장 환경과 시대적 풍조가 마음에 내재하여 음률로 드러나면 시가 된다. 곧, 모든 작가들의 작품은 먼저 선천적 재기에 의하여 저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게 되

27) 전형대 외, 『韓國古典詩學史』, 기린원, 1988. p.135.

어 있다.

글은 氣를 위주로 하는데, 氣의 淸濁에는 각자의 體가 있어서 억지로 하여 이를 수는 없는 것이다. 음악에 비유하자면 가락이 비록 일정하고 리듬 역시 같은 규칙으로 연주한다고 해도 기를 운용함에 있어 일정하지 않음에 교묘함과 서투름이 바탕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비록 부모나 형이라 해도 자식이나 아우에게 전이될 수는 없는 것이다.<sup>28)</sup>

문장은 각기 부모나 형으로부터도 물려받을 수 없는 고유한 재성과 기질에 의하여 창작된 결과물이라는 뜻이다. 고죽과 옥봉에게 이런 재성과 기질이 없었다면 최백시는 존재치 않았을 것이다.

고죽은 선초 문단의 한 주류를 이룰 정도로 시명이 뛰어났고 그의 시는 후대까지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그의 인물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연보나 행장은 찾기가 어렵다. 비록 시문학으로 일세를 풍미했다 할지라도 실록에 남아 있는 그에 관한 기록도 그의 출사와 관련된 것 말고는 자세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고죽의 문학에 대한 선천적 재기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다만, 『孤竹集』 전후 <序>에는 그의 문학에 대한 선천적 재기를 사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孤竹集』에 후서한 남계는 고죽을 천품이 豪爽俊邁하고 풍채가 聳然하여 보는 자가 어렴풋이 마치 신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썼다. 또, 고죽은 시에 타고난 재주가 아주 높아 문필계에서 국조에는 없었다고 적고 있다.<sup>29)</sup> 곳곳한 기상과 맑은 성품을 지닌 천부적인 시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우암은 <孤竹集序>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8) 曹 丕, 『典論』, <論文>. 참조 이병한 편, 『중국 고전시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2. p.292 재인용.

29) 朴世采, <孤竹集後跋>. 『孤竹集』, p. 247.

天資豪爽俊邁 風采聳然 見者悅若神仙中人 中略 公於詩 天才絕高 必皆軌範 于盛唐 操觚家以爲國朝所未有.

늙음에 이르러 공의 遺事를 두루 보고 또 선배와 장자들을 쫓아 공의 사적을 얻기를 더욱 자세히 한 연후에 마침내 우연히 탄식하기를 ‘이는 장차 사람으로서 시를 덮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시로써 사람을 덮음에 이르렀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스스로 공을 알게 알았던 것을 탄식하였다.<sup>30)</sup>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시적 재기가 넘쳤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사람으로서 시를 덮으려고 했는데 시로서 사람을 덮었다’ 함에 이르러 그 시적 자질을 살필 수 있다. 문학을 載道之器로만 여겼던 당시의 선비들은 자신의 성정을 도야한 후에 창작된 작품만을 시다운 시로 인식했다. 경술을 본받고 성현과 고인의 글을 몸소 체득한 후 문학에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고, 그렇게 될 경우 사람이 시를 덮는 경우가 된다. 그러나 조선 유학의 거두였던 우암마저 고죽의 시가 사람을 덮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했으니 이러한 평가는 우선 고죽이 천부적으로 시문학에 재기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옥봉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시적 재기를 발휘한다. 문중에서 번역서를 낸 『옥봉집』에는 6살 때 해남 글방에서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감회를 시로 읊었다 하며<sup>31)</sup> 11살 때는 스승 앞에서

석양 강가에 피리소리 그윽한데	夕陽江山笛
가랑비 내리는 강을 건너는 사람	細雨渡江人
들려오던 소리는 오간데 없는데	餘響杳無處
강가에 꽃잎이 돌아나니 나무마다 봄이어라	江花樹樹春 <sup>32)</sup>

를 지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옥봉이 아직 그 당시의 문풍에 대하여 문외한이나 다름없었던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이 자연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

30) 宋時烈, <孤竹集序>. 『孤竹集』, p. 27.

及其老 遍閱公遺事 又從先輩長者 得公之事踏尤詳. 然後乃喟然而歎曰 是將以人掩詩 而乃及以詩而掩人耶 自恨 其淺之爲知公也.

31) 『玉峯集』에는 옥봉이 6세 때 지은 “好在庭萬樹 花開又一來”이 소개되어 있다.

32) 『玉峯集』, p.18.

의 감상적인 시작품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의 범상하지 않는 시적 재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최백의 스승이었던 송천은 옥봉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긴다.

네가 본디 좋은 것은 청고하기 때문인데	愛君元是爲清標
시재를 겸비하여 세상에 뛰어 났네	兼得才華與世超
필법은 鍾繇와 王羲之를 따르고	筆法種玉稱北面
詩篇들은 何遜과 劉孝標에 버금가네	詩篇何劉檀南朝
전원에서 함께함에 기분이 좋지마는	田園歸與饒今日
나무에 구름 가듯 이별이라 이 밤이 애석하이	雲樹離情惜此宵
돈 없어 술도 못 사 그것도 한인데	却恨無錢堪買酒
저문 하늘 성긴 비에 날씨마저 쓸쓸하네	暮天疎雨日蕭蕭 <sup>33)</sup>

수련은 옥봉의 청고한 기질과 뛰어난 시적 재능을, 함련은 쫓나라 중요와 왕희지에 따르는 필법과 남조 시대 河遜(?~517)과 劉孝標(461~522)에 버금가는 청신한 시풍을 예찬하고 있다. 경련은 전원에서 옥봉과 함께 하는 즐거움 속에서 이별을 상기하는 애석함을 읊조렸고, 미련에서는 술을 다 마셔도 스며드는 이별의 정한은 어찌할 수 없음을 읊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수련과 함련이다. 옥봉을 가르친 스승이 그를 본디 청고한 기질과 시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고, 하손과 유효표에 대등한 인물로 평가할 정도라면 예찬도 대단한 예찬이다. 하손과 유효표는 河劉로 불리며 청신한 시풍의 佳作을 남긴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으로서 자연미와 감정을 융합시켜 새로운 경지의 시풍을 형성 했고 그들의 작품은 후일 당시로 발전하는<sup>34)</sup> 계기가 된다. 최백이라는 별칭이 혹 하유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도 짐작되는데, 어쨌거나 스승이었던 송천은 이미 옥봉을 당시풍을 선도한 시적 재기의 인물로 칭송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이 제가들은 최백의 천부적인 시적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33) 梁應鼎, 『國譯 註解 松川集』, 郎州印刷社, 1988. p. 92.

34) 小尾郊一, 『中國文學 속의 自然觀』, 尹壽榮 譯, 江原大學校出版部, 1988. p.263.

이런 평가에는 최백이 어렸을 때부터 성정 도야 후 문학에 드는 것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이를 학습하거나 깨닫지 못한 상태부터 문학을 위한 문학에 차츰 길들여졌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최백이 송천 문하에서 栗谷 李珣(1536~1584) 등과 더불어 未弱冠의 八文章으로 불렸던 것에서도<sup>35)</sup> 그들의 문학에 선천적 재기가 확인된다. 결국, 최백은 시 창작에 대한 천부적인 자질을 지니고 태어났고, 그 결과는 다분히 목적의식에 충실한 당시의 재도문학과는 다르게 다양성과 예술성을 특징으로 한 당시풍의 작품을 내놓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3.2 師承과 交遊 關係에서 형성된 情義

아무리 타고난 시적 재기가 발랄하다 하더라도 사승 및 교유 관계에서 터득한 정서를 제외하고는 시풍 형성의 배경을 논의하기 어렵다. 사승과 교유 관계에서 이루어진 학습효과는 모든 작품에 그대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최백의 사승 및 교유는 대부분 호남을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스승이었던 靑蓮 李後白(1520~1578)과 松川 梁應鼎(1519-1582)의 영향에 대하여 먼저 규지할 필요가 있다.

어려서부터 온화하고 단중하며 맑고 깨끗했던<sup>36)</sup> 청련은 이미 8살 때 <塔畔松><sup>37)</sup>을 지어 도백에게 그의 호기 넘치는 시재를 보여줄 정도로 시로 이름을 날렸다.<sup>38)</sup> 예를 스스로 지켜 행동에 법도가 있었고, 마음가짐이 담백했으며, 뜻을 힘써 책을 보아 학문이 매우 정통한 전형적인 유가

35) 朴世采, <孤竹詩集後序>. 『孤竹集』, p. 247. 未弱冠 同栗谷李先生 龜峯宋翼弼 東臯崔岄諸才子 唱酬于武夷洞 世號八文章稷.

36) 『明宗實錄』, 29卷, 18년(1563 계해 / 명 가정(嘉靖) 42년) 5월 11일(무자) 2번째 기사.

37) 李後白, 『國譯靑蓮集』 卷之三, 國譯靑蓮集刊行會, 1992. p. 186. <年譜> 先生時在山寺讀書, 本道伯適至, 聞先生名, 招之試以詩, 適見塔畔有新栽小松, 乃以塔畔松爲題呼韻, 先生卽對, 一尺靑松塔畔栽 塔高松短不相齊 傍人莫怪靑松短 他日松高塔反低.

38) 李濟臣, 「淸江先生詩話」. 『國譯靑蓮集』, p. 343. 李佐郎後白 朴執義淳, 皆自儒時有詩名.

적 삶을 추구한 선비였다. 청련은 당대 사장에도 능했고,<sup>39)</sup> 특히 시문이 豪健해 사람들이 애송함이 많았다.<sup>40)</sup> 청련의 시는 그의 문집에 모두 100여 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호방 외에도 청신하고 기묘한 경계, 편안하고 한가로우며 평온한 은일적 분위기, 티끌하나 없는 탈속의 경지 등이 주조를 이룬다.<sup>41)</sup> 여기에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념도 드러나지 않은 채 순수한 서정성을 바탕으로 한 회화적인 형상화와 여성 정서가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sup>42)</sup> 고죽과 옥봉이 그런 경향을 지향했던 청련에게서 함께 수학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농암의 지적처럼, 호남의 시가 청련으로부터 당시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대를 이어 옥봉과 고죽 등이 일어나 문단에서 더욱 유명해졌다<sup>43)</sup>는 사실 때문이다.

최백이 청련의 문하로 든 때는 각각 12세와 14세였다. 함양에서 태어난 청련이 가정사로 인해 16세에 금릉(金陵: 현 강진)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주경야독하여 23세 때 향시, 27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과시를 준비하던 32세 때였으니<sup>44)</sup> 그의 시가 당풍으로 완숙되기 이전이었다. 그래서 당풍 경향의 청련시를 최백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농암의 지적은 선부른 일반화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청련시의 평가는 일생을 두고 탈고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30세 이전에도 이미 당풍의 시재를 발휘했던 청련이었으므로 그의 삶과 문학적 지향은 최백에게 충분히 전이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3년 만에 청련 문하를 나와 함께 서울로 송천을 찾아간<sup>45)</sup> 최백은 거기

39) 柳希春, 『眉巖日記』, 『國譯 靑蓮集』, p. 332. 當代詞章之士, 盧守愼, 金貴榮, 尹鉉, 李後白, 奇大升, 朴承任, 崔著 而季眞差遲澁云.

40) 『明宗實錄』, 31卷, 20년(1565 을축 / 명 가정(嘉靖) 44년) 11월 18일(신해) 1번째 기사.

41) 김동하, 「靑蓮 李後白 詩의 風格」, 『古詩歌研究』 25,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pp.51~75. 참조.

42) 김대현, 「靑蓮 李後白 漢詩에 나타난 두 가지 새로운 경향」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2004. pp. 335~357.

43) 주8) 참조.

44) 李後白, 앞의 책, p. 188.

45) 『孤竹集』, p. 248. 『玉峯集』, p. 19.

에서 자연 귀의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송천은 아버지 學圃 梁彭孫(1488~1545)으로부터 귀에 젖고 마음에 젖는 가르침을 받고 학문을 독실하게 하여<sup>46)</sup> 氣岸이 늠름한 顏子로 불렸는가 하면<sup>47)</sup> 학식이 精하고 詞操에 능했던 선비였다.<sup>48)</sup> 송천은 경술에 정진한 유학자이자 문인이었던 것이다. 송천의 시문은 대단히 많았으나 망실되고 겨우 遺詩 200여편이 전해질 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송천의 시를 분석해 보면 학문과 誠意·正心の 修己 중심적 자아에다가 純粹 指向의 意志 그리고 知人들과의 막역한 관계를 통해 곡진한 인간적 정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49)</sup>

그런데 최백이 송천을 찾은 것은 생원시에 합격한 후 오로지 경전 탐독에 전념할 32세 때로<sup>50)</sup> 당시 조정은 사림 세력을 배척한 훈구 세력들이 지배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아직 미약관의 최백으로서는 좀 더 심오한 유학의 세계를 접해보고자 함이었겠으나 송천도 자연 귀의냐 아니면 출사냐를 놓고 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고<sup>51)</sup> 말년에는 <歸田賦>를 짓고 귀향하여 인재 양성에 힘썼던 것으로 보면 그의 자연 귀의와 은일적 취향은 그대로 최백에게 전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천의 문하를 나온 최백은 다시 환향하여 호남 사림들과 情義로써 시사에 참여하며 시적 재능을 발휘한다. 그 당시 호남은 知止堂 宋欽(1459~1547), 訥齋 朴祥(1474~1530), 錦南 崔溥(1454~1504) 학맥이 세 갈래로 이어 오고 있었다.<sup>52)</sup> 최백은 이중 주로 놀재 학맥을 이은 思庵

46) 梁應鼎, 앞의 책, p.9.

47)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2, p. 560. <識小錄>.

許筠, 앞의 책, 卷22. 說附 2. <惺翁識小錄>.

48) 梁應鼎, 앞의 책, p.333. <松川先生梁公神道碑銘>.

49) 拙稿, 「松川 楊應鼎의 文學的 意識 世界」, 『古詩歌文學』 6, 韓國古詩歌文學會, 1999. pp.123-147.

50) 『松川集』, p 12. 연보에는 송천이 47세 때 大司成이 되었으나 시기하는 자를 피해 박산으로 돌아와 인재 양성할 때 최백을 배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고죽과 옥봉의 문집이 일치한 것을 보면 이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51) 『松川集』, 第1編, p.32. <次李季眞後白韻題僧軸> 歸田悔不及年華 一上高臺一惘然 何處僧從江畔路 影和殘照倒清漣. 참조.

52) 朴峻圭,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출판부, 1998. pp. 85~103. 참조.

朴淳(1523~1589)의 교우들과 시교를 맺는다. 최백은 당시 사암이 1553년 親試文科에 장원하여 修撰으로 있다가 33세 때 賜暇讀書할 때였으니 직접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석천, 高峰 奇大升(1512~1572), 하서, 棲霞堂 金成遠(1527~1597), 제봉, 知足庵 吳謙(1496~1582) 등 호남 사림들을 스승처럼 섬기며 어울렸음이 최백시를 통하여 확인된다. 문장에 있어 漢黨의 格法을 追復하였고 시에 특히 능하여 또한 한 시대의 종주로 평가받고 있는 사암<sup>53)</sup>이었으니 최백이 그의 교우들과 어울렸다는 것은 思庵의 시학과 시풍의 감회가 최백시 당풍 형성에 적잖을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sup>54)</sup>

이밖에 최백은 河西, 俛仰 宋純(1493~1583), 沙村 金允梯(1501~1572), 瀟灑 梁山輔(1503~1557), 鼓巖 梁子徵(1523~1594), 眉巖 柳希春(1513~1549) 등과 교유한다. 이들은 모두 당대 호남에 기반을 두고 당풍의 시를 즐기는 문인들이었다. 또, 松江 鄭澈(1536~1593)과 白湖 林悌(1549~1587) 등과 詩交를 맺는다. 최백이 사암 문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맥과도 폭넓게 정의로서 교유하면서 점차 당풍에 물들어 갔다는 의미이다.

최백의 두터운 정의는, 고죽이 23세 때 진사시 29세에 대과에 올라 출사의 길로 나서고 옥봉이 해남 옥봉 아래에 우거하며 己丑獄死의 주모자로 지목된 鄭汝立(1546~1589)을 천거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진도에 유배 중인 蘇齋 盧守愼(1515~1590)을 찾으려 정한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

일찍부터 문학과 행신으로 명성이 무거웠던<sup>55)</sup> 소재는 을사사화와 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19년 동안 순천과 진도에서 외롭고 험난한 생활을 경험한다. 소재는 적거 중에 <夙興夜寐箴註解>, <童蒙須知註解>, <人

53) 『宣祖實錄』, 선수 23권, 22년(1589 기축 / 명 만력(萬曆) 17년) 7월 1일(병오) 3번째 기사.

54) 朴峻圭, 앞의 책, p. 94.

55) 李珣, 『石潭日記』, 上卷, <용경(隆慶) 원년(元年) 정묘(丁卯)>, 시월(十月).

心道心辨> 등과 같은 정통 유학에 대해서도 저술하지만 유배자로서 소재의 심적 갈등을 장편시 <沃州二千言>을 비롯하여 1000여 편에 그대로 표출한다.<sup>56)</sup>

16세기는 도학자들은 산문과 기교적인 송시를 지향했고 처사들은 음악성과 서정성을 중시한 당시를 선호했다 하였거니와 도학자로서의 인품을 지녔던 소재가 절도 유배 중에 표출한 시적 경향은 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sup>57)</sup> 환로 후에 館閣三傑의 칭호를 들었던 소재가 적어도 유배 중에는 군자의 삶도 적거의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당시 호남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었던 당시를 상당히 수용한 결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소재가 진도에서 10여 동안 이미 그런 경향의 시를 수없이 탈고했을 때 아직 스물 갓 넘은 옥봉으로서는 배우고자 한 바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옥봉이 처음 찾아 갔을 때 소재는 그를 친구로 대하면서 <自生至夜飲>을 읊는다.

시월이라 초 사흔날	十月初三日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 왔네	朋來自遠方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름 들은 지 오래	神交久名聞
의가 합해지니 나이도 잊을 만하네	義合可年忘
웃으며 하는 말에 온전히 경도되어	語笑專傾倒
이 몸 취해 스러지도록 말기네	形骸任醉僵
이 삶은 오로지 무료할 뿐일지니	此生聊爾耳
후에 다시 만나기를 어찌 기약하리	後會更何當 <sup>58)</sup>

시월 초사흔은 1558년 옥봉이 22세요 소재가 44세 때이다. 시로 보면 소재는 이미 옥봉을 神交로 알고 있었고, 그가 찾아오자 자식 같은 22세 연하의 옥봉에게 경도될 정도였다 하니 사승 관계를 넘는 인간적인 정과

56) 金光淳 外, 「蘇齋 盧守愼 研究」, 『韓國의 哲學』17, 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1989. p.6.

57) 金光淳, 앞의 논문, p. 26.

58) 盧守愼, 『蘇齋先生文集』附錄, 蘇齋先生文集刊行會, 1987. p. 350.

의리 관계로 맺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소재는 옥봉을 술벗으로만 생각지는 않고 학문에 매진하라는 가르침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sup>59)</sup> 24세 때 처가가 있던 해남 옥봉에서 우거하면서 진도를 왕래한 옥봉이 28세 때 진사시에 합격했을 뿐 과거에는 뜻을 두지 않은<sup>60)</sup> 그를 소재가 재환로한 후 館伴使로서 옥봉을 제술관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옥봉과 소재의 정의적 관계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최백은 서로 헤어지면 송별과 그리움의 시를 썼다. 그러다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해후한 이들은 송강과도 다시 만났고 사암의 문하에 들면서 손곡과도 사귄다. 특히, 율곡과 牛溪 成渾(1535~1598)과는 도의지교였고 伯生 李純仁(1533~1592), 健齋 金千鎰(1537~1583), 萬竹 徐益(1542~1587), 閔忠元(1541~?), 鄭運(1543~1592), 鵝溪 李山海(1539~1609)과는 절친한 문우 관계였다. 문집에는 교유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작품이 일일이 들어 보일 수 없을 만큼 다수 전해지고 있고, 그 작품들은 진솔한 인간적 정의가 거의 전부이다.

요컨대, 최백은 청련, 송천, 소재, 석천, 사암 등과의 사승 관계와 하서, 면양, 사촌, 소쇄, 고암, 미암, 송강, 백호 등과 詩交 속에서 무겁고 진지한 삶의 태도보다는 주로 자연적이고 낭만적인 작품들을 수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때마침 이 시기는 고려 말부터 전개된 蘇東坡, 黃庭堅을 필두로 하는 江西詩風을 식상해 하여 새로운 기풍의 시를 기다리던 때였다. 마침 최백은 관료들이 지향했던 재도적 경향과는 다르게 정의로써 맺어진 사승 및 교유 관계에서 형성된 당시 호남 시단의 분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음악성과 서정성을 중시한 새로운 시풍을 구가했으니, 이러한 경향이 결국 당풍 진작의 기회로 귀결되었다 할 것이다.

59) 주5) 『崔白詩』附錄 p. 109. <贈玉峯> 참조. 何事是先務 讀書爲最宜 要開脚下路 當拔眼中籬 在處無非物 其如有不知 吾衰不足畏 子邁莫須遲.

60) 『玉峯集』, p.19. 二十八世中進士 前此雖或赴學 而屢發解 亦有不屑底意 至是遂廢 舉業.

### 3.3 現實에 대한 傍觀的 態度

성리학을 정통으로 삼았던 선초의 학풍은 당학과 송학으로 양분되어 전개되는데 여말에 전래한 문장 중심, 정치 중심의 한당 학풍과 새 시대의 이론 중심, 이학 중심의 송학류의 학풍<sup>61)</sup>이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 때문에 中宗朝에 이르면 이를 수용한 조정 학자들 사이에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진다. 조정의 대립과 반목은 사화의 단초가 되어 勳舊派, 節義派, 士林派, 淸談派 등의 재분열로 이어지고 그 와중에서 당쟁으로 치닫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선왕의 도를 정치에 실현시킨다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崇道學, 正人心, 法聖賢, 與至治를 부르짖었던 靜巖 趙光祖(1482~1519)를 중심으로 한 눌재, 沙西 金湜(1482~1520), 忠巖 金淨(1486~1520) 등의 신진 사류와 知足堂 南袞(1471~1527), 逍遙亭 沈貞(1471~1531) 등 사장 위주의 기성 귀족들 간의 격화된 대립이 우심하였고, 뒤이어 소위 大尹과 小尹 간의 권력다툼으로도 많은 선비들의 희생을 당했다. 승자의 부상과 패자의 몰락이 반복되는 동안 사회 기강은 더욱 문란해지는 한편 반대파에 대한 적개심이 노정되었고, 뜻있는 선비들은 유배를 당하거나 관직을 버리고 물러나 수기와 학문의 기회로 삼는다.

이런 가운데서도 신진 사류들이 주장한 주자학은 그대로 계승되어 조야를 막론하고 이를 터득하지 않은 선비가 없었다. 양명학을 접한 谿谷 張維(1587~1634)는 중국의 학술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모두 程朱만을 칭송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지만,<sup>6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학은 누구나 학습해야 할 공통적인 학문으로서 굳건하게 되었다.

주자학에서는 문학도 道文合一이 그 근본이다. 모든 유자들은 문학을 예술로 취급한 게 아니라 옛 성현의 가르침인 경전을 담아야 할 그릇으로 인식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載道之器니 貫道之器니 하는 말

61) 玄相允, 『朝鮮儒學史』, 玄音社, 1982. P. 33.

62) 張 維, 『谿谷集』, 「谿谷漫筆」 卷 1. 中國學術多技 有正學焉 有仙學焉 有丹學焉. 有學程朱者 有陸氏者 門徑不一 而我國則無論有識無識. 挾冊讀書 者 皆稱誦程朱 未聞有他學焉. 豈我國士習果賢於中國也 曰非然也.

이 그래서 나왔다. 문학에 도를 넣어 시속을 교화해야 한다는 관념은 이 시대의 확고부동한 문학관이 된 것이다. 최백의 스승이었던 청련, 송천, 소재 그리고 사암 등도 모두 주자학을 학문의 으뜸으로 쳤던 선비들이었고, 그들과 교류 했던 호남의 사림들 역시 그 생각은 한결 같았다.

과거 급제와 추천 제술관으로 장안에서 다시 만난 최백은 이러한 시대적 환경과 제도적 학풍에 대한 괴리 속에서 무척이나 심적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최백이 막상 반목과 질시의 생생한 현장이었던 조정에서 직접 정치를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갈등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 현실은 최백이 젊은 나이에 청련과 송천의 문하에서 깨우치고 문우들과의 교류 속에서 터득한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벼슬길로 나선 고죽은 그의 전도가 화려한 것만은 아니었다. 고죽은 北評事, 禮曹, 兵曹의 員外郎, 司諫院 正言, 靈光郡守, 大同察訪, 鐘城府使, 防禦使從事官 등으로 전전했고, 吏曹와 禮曹 그리고 大提學에서 같이 讀書堂에 보낼 사람을 간택할 때도 좌절되기도 했다.<sup>63)</sup> 관비와 살았다는 이유로 파직도 당했다.<sup>64)</sup> 이후에도 고죽은 사장을 취하고 그 글과 행실이 아울러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관직으로 임명될 때마다 빈번히 계청을 받았다.<sup>65)</sup> 최경창은 본래 당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아니었으나 그 당시의 비국 당상에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박이 특히 준절했다.<sup>66)</sup> 사실로 미루어 보면, 고죽은 명분은 사장 중심의 문풍과 난잡한 행실로 인해 조정의 중심인물이 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실은 당쟁의 피해자였음을 여기에서 확인하게 된다. 선조 주위의 동인

63) 『宣祖實錄』, 선조 7권 6년(1573 계유 / 명 만력(萬曆) 1년) 11월 26일(임인) 3번째 기사.

64) 『宣祖實錄』, 선조 10권, 9년(1576 병자 / 명 만력(萬曆) 4년) 5월 2일(갑오) 2번째 기사. 그 관비는 홍량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65) 위의 같은 곳.

66) 『선조실록』, 선조 13권, 12년(1579 기묘 / 명 만력(萬曆) 7년) 6월 1일(을해) 1번째 기사, 慶昌 本非黨目中人物, 而其時備局堂上 多先輩 故論駁特峻.

관료들이 율곡, 송강 등과 교분이 두터웠던 고죽을 서인으로 몰아세운 것이 그의 순탄하지 않은 벼슬길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시련 속에서 고죽이 선택한 길은 방관이었다.

옥 같은 개울에 연기와 노을 따뜻하고	玉洞煙霞暖
금빛 모래엔 해 그림자 더디다	金沙日影遲
개울머리에서 차가운 술 데우려	溪頭煮寒酒
아이는 솔가지를 꺾는구나	童子折松枝 <sup>67)</sup>

고죽의 <三清洞口占>이다. 고죽이 조정에 드나들던 때 삼청동에서 술을 마시며 지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에는 시주를 벗 삼고 정치 현실과 멀리하면서 탈속의 세상을 살고자한 뜻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소재에 의하여 조정에 진출한 옥봉도 정치 현실을 방관하기는 고죽과 마찬가지로였다.

만력 팔년(1580년) 봄에	萬曆八年春
옥천자는 낙성에 살고 있었네	玉川子寓居洛城裏
박봉에 굶주림도 구제할 길 없어	薄祿不救飢
날마다 돌아가서 밭이나 갈까 생각했네	歸耕日日思田里
문을 나서도 친한 사람조차 없고	出門無所親
죽마 타던 두세 사람	竹馬二三人
열흘에 얼굴 한번 보았던가	十日何曾一見顏
----- 중략 -----	
또 한잔 술 다 드시게	且盡一杯酒
가거든 풍월주인 되시게나	去作風月主
연광정 앞에는 패강이 푸르고	練光亭前溟江碧
백상루 밖에는 향로봉 빼어나리	百詳樓外香爐秀
문득 생각나면 사공에게 가서 물어 보오	便思往問艤船子
손가락 꼽을 영웅으로 정한 사람 누구냐고	屈指英雄定誰是
우리 형님 관서곡을 잘 불렀는데	佳人解唱關西曲

67) 『孤竹集』, pp. 31~32.

우동이 아직도 당시 일을 말하는데	郵童尙說當時事
봄바람에 곡을 들으니 두 배나 슬퍼지고	春風聽曲倍悽然
흐르는 물 뜬 구름은 삼십 년 되었네	流水浮雲三十年
이때 서로 그리워짐 그대도 아시려니	知君此時偏相憶
서로 그리우면 꼭 명월시를 써주게	相憶應題明月篇
명월은 동해에서 솟아 아득히 따르는데	明月遙從東海出
송강은 떠난 후 음서조차 끊어졌구려	仙翁去後音書絕
내년 푸른 풀 우거질 때 좋이 돌아오면	明年草綠好歸來
다시 송강 불러 거듭 잔을 들리라	却喚仙翁重舉杯
술잔 들어 밝은 달에게 권하노니	舉杯勸明月
이별할 때 다시는 비추지 말아다오	莫更照離別
강산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아	江山不負人
꽃과 버들 옛 봄처럼 변함이 없으리	花柳依舊春
서울 거리에서 크게 취해 소리 높이 노래하면	大醉高歌洛陽陌
사람들이 진정으로 狂客이라 부르겠지.	從他喚作眞狂客 <sup>68)</sup>

옥봉이 1580년 대동찰방으로 보임되어 떠나는 고죽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건넌 <贈崔孤竹關西之別>이다. 어느 구절에도 다른 선비들이 으레 수창했던 충신 연주와 같은 도덕적 덕목은 없다. 오히려 이별의 정한을 시주로 달래고 있으니 정치 현실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라 할 것이다.

최백시에서는 정치적 환경과 채도적 문풍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면려하거나 노골적으로 비판한 작품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맑고 깨끗한 탈속의 세상을 지향하면서 인간적인 정의와 정한을 아주 곡진하게 표현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삶에 대한 갈등을 오히려 방관자적 태도로 극복했고 이로 말미암아 서정적으로 승화하는 경향의 시를 창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사실, 송학의 조류 속에서 당학이 합류했다는 것은 시대적 역행과 다름이 없다. 당시와 송시는 대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곧, 당시는 풍부한 감정이 수반되어 미려하고 멋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송

68) 『崔白詩』, P. 107

시는 성리학 수용이라는 철학성과 논리성의 시론을 갖추고 功用과 平淡을 추구한다. 또, 서술의 섬세화와 미문과 묘문을 기피하고 자연미와 비애미를 부정한다.<sup>69)</sup> 송학을 이념으로 삼았던 선초였음에도 그 전대의 학풍인 당학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니 역행이라 이를 만하다는 것이다.

출사하여 모순된 현실을 직접 목격했던 최백으로서 역행의 시류를 탈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에 대한 방관적 태도가 그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겠다. 또, 목적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학풍과 자연미와 비애미를 부정한 경향 등이 타고난 기질에 맞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16세기 송풍을 모해한 문학적 환경 속에서 고죽 최경창과 옥봉 백광훈의 시가 당풍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최백은 지근거리에서 문학에 대한 천부적인 자질을 지니고 태어나 같은 스승에게서 수학했고, 공교롭게도 두 문인 다 벼슬길에 나서지만 세리에 영합하지 않은 채 시주에 의탁하며 세상살이를 오로지 수창으로 일관했음을 알았다. 한국문학사에서 이들의 시는 성당풍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다. 문학을 심성 수양의 수단으로 보는 도덕주의가 본류를 이룬 선초에 최백이 이처럼 성당풍의 시를 진작시킨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인과적 필연성이 성립했다.

첫째, 최백은 문학에 대한 先天的 才氣가 본능적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하였다. 최백은 어렸을 때부터 性情 陶冶 후 문학을 실천하는 것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이를 학습하거나 깨닫지 못한 상태부터 문학을 위한 문학에 차츰 길들여 갔던 것으로 파악했다.

69) 金學主, 『中國文學概論』, 新雅社, 1988. pp.79~96.

둘째, 師承 및 交遊關係에서 터득한 情義가 당풍으로 이어지게 된 또 다른 배경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최백은 이미 당풍을 일깨운 청련, 송천, 사암, 석천 등을 스승으로 삼으며 유학과 시를 함께 배웠고, 호남의 사립들과 교류하면서 자연미를 발견하고 비애미를 터득하게 되어 결국 당풍의 경향을 창작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셋째, 최백은 당시 社會的 矛盾, 載道的 學風에 대한 괴리 속에서 무척이나 심적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게 되고, 이러한 삶은 수창으로 이어져 마침내 성당풍 경향의 시를 창작하게 된 동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학과 송학이 혼재되어 전개되던 선초에 사승 관계와 교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최백으로서는 道文合一의 다분히 목적의식이 강한 시보다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시주를 벗 삼은 점 등이 당풍 형성의 배경이 되었음도 알았다.

한 번도 자신들만의 시학이나 시론을 전개한 기록이 없는 가운데서 최백시의 唐風 形成 背景을 고찰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세 가지 배경이 종합적이고 은연중에 작용하여 결국 당시풍로 귀결되었다는 인과적 논리는 충분히 성립된다 할 것이고, 이미 정립된 최백시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에도 또 하나의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 金昌協, <苔川集序>, 『農巖集』 卷 22.  
盧守愼, 『蘇齋先生文集』, 蘇齋先生文集刊行會, 1987.  
白光勳, 『玉峯集』, 玉峯集編纂委員會, 전일실업출판국, 1992.  
『宣祖實錄』.  
梁應鼎, 『國譯註解 松川集』, 郎州印刷社, 1988.  
李後白, 『國譯 青蓮集』 卷三, 國譯青蓮集刊行會, 1992.  
趙達淳 譯, 『三唐詩』, 태학사, 1999.  
趙鐘業 編, 『韓國詩話叢編』Ⅱ, IV. 東西文化院, 1989.  
崔 岵, 『簡易集』,  
崔慶昌, 『孤竹集』, 靈巖文化院, 2002.  
『崔白詩』  
許 筠, 『國譯 惺所覆瓿藁』, 민족문화추진회, 1989.

### <논저>

- 金光淳 外, 「蘇齋 盧守愼 研究」, 『韓國의 哲學』 17, 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1989. p.6.  
김대현, 「青蓮 李後白 漢詩에 나타난 두 가지 새로운 경향」, 『韓國言語文學』 53, 韓國言語文學會, 2004. pp. 335~357.  
김동하, 「青蓮 李後白 詩의 風格」, 『古詩歌研究』 25,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pp.51~75.  
金鐘西, 「玉峯 白光弘 詩의 風格」, 『韓國漢詩研究』 3, 韓國漢詩學會, 1995. pp.189~229.  
----, 「孤竹 崔慶昌 詩의 風格」, 『韓國漢詩研究』 12, 韓國漢詩學會, 2004. pp.227~266.

- 金喆凡, 『東洋漢文學 研究』 13輯, 東洋漢文學會, 1998. pp. 226~227.
- 박영관, 「玉峯 白光勳의 交遊와 詩文學 研究」, 朝鮮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06.
- 朴峻圭, 『湖南詩壇의 研究』, 全南大出版部, 1998. pp. 85~103.
- 宋寯鎬, 「蓀谷 李達 詩研究」, 『東方學志』 64. 1989. pp.75~117.
- 安炳鶴,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 이병한 편, 『중국 고전시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2. p.292
- 전형대 외, 『韓國古典詩學史』, 기린원, 1988. p.135.
- 조영임, 「孤竹 崔慶昌의 風格과 詩世界」, 『개신어문학』, 1999.
- 車溶柱, 『韓國漢文學作家研究』, 亞細亞文化社, 2001. p. 318. 276~360.
- 玄相允, 『朝鮮儒學史』, 玄音社, 1982. P. 33.
- 拙 稿, 「松川 楊應鼎의 文學的 意識 世界」, 『古詩歌文學』 6, 韓國古詩歌文學會, 1999. pp.123-147.

투고일 : 2013년 1월 1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forming the Tang style poem of Choi- Baek

Kim, Jun-ok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that formed the Tang style poem of Gojuk Choi Gyeongchang and Okbong Baek Gwanhun under the literary environment of Song style in the 16th century.

Among the top 3 Tang style poets in the literary history of Korea, Choi Gyeongchang and Baek Gwanhun are called Choi-Baek. Their poet style was the heyday Tang style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Song style of their age. In the early Joseon at a time when moralism took the mainstream which regarded literature as a means of cultivating mind and mentality, the promotion of heyday Tang style poems by Choi-Baek seems to be derived by the following background.

First, the inherent talent of Choi-Baek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stinctively. They showed an exceptional ability of poem from their youth. They did not refuse to practice literature after cultivating their mind, they got accustomed to literature for literature even when they did not learn or recognize it.

Second, the mentality they learned and obtained in the learning and communication became background of creating the Tang style poems. Choi-Baek learnt Confucianism and poems together from their teachers such as Cheongyeon, Songcheon, Saam and Seokcheon, and they recognized natural beauty and grieving beauty from their communication

with Confucius scholars in Homan who already learnt the Tang style, which led them to create the Tang style poems.

Third, Choi-Baek suffered from political contradiction by party conflicts, and also from gap on the institutional academic trend. However, they overcame an attitude of bystander and achieved the heyday Tang style poems.

Choi-Baek did not leave any poetic theory on their own. However, it is proper to regard the poetic achievement was made possible by their inherent talent, learning and communication relation, and bystander attitude of political reality implicitly.

**Key words :** Choi Gyeongchang, Baek Gwanghun, heyday Tang style, talent, mentality, bystander